

대아건설주식회사 대전도시철도 1-9공구

안전을 계몽한다는 자세로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의식 개혁



▲ 오 지 성 소장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봄날, 산언저리에는 산수유가 가장 먼저 인사를 한다. 입고 있는 긴 옷소매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차창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꽃향기를 실은 듯 상큼하다. 이렇듯 포근함에 취하다 보면 온몸이 나른해지기 쉬운 것이 요즘이다.

그러나 봄의 나른함도 잊은 채 안전한 시공속에 준공을 향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현장이 있다. 대아건설주식회사 대전도시철도 1호선 9공구 현장(오지성 소장)이 오늘 찾은 우수현장이다.

대아건설(주)대전도시철도 1-9공구 현장은 99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으로 구간은 서구 용문동 4거리에서 탄방동 지하철도까지 14km에 이르러 정거장 1개소와 환기구 2개소, 그 외 본선을 ATL개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도 대전시장으로부터 최우수 공구로 선정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003년 올해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본사로부터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장에서 오지성 소장을 만나 우수현장으로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

지하철공사는 도로상에 교통량이 많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환경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우선적으로 대처

건설안전리포트

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기억하고 기본을 반드시 지키게 한다.

이는 공정별 기본안전수칙 준수에서 시작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곳의 안전관리 활동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정별 위험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개최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을 항상 현장내 상주케 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주변에 설치된 계측기 활용 및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전 예방 시나리오에 의한 대비훈련에도 철저하다.

공기단축은 안전을 무시한 시공

현장을 착공할 때에는 공사기간이 정해진다. 그 공사기간 산출은 각종 기상, 대내외 환경을 철저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큰 실적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오지성 소장은 “공기를 늦추는



것도 문제지만, 단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공기를 단축하다보면 무리한 시공을 하게 되어 저품질 시공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근로자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공기단축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잘못된 건설문화는 조속히 없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은 하나의 예술품과 같아서 후대에까지 시공자의 이력이 따라다닌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600~700년 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산물도 정성을 다한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건설인도 정성을 다한, 안전한 시공을 위해 장인정신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협력업체 근로자에게서 무재해를 찾는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원시공사 직원보다는 협력업체 직원이 훨씬 많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재해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 그것도 시설물, 안전장치, 보호장구 등의 원인에




서비롯되는 경우는 3% 미만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재해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서 기인된 재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5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조한다. 이에 오지성 소장은 “건설현장은 현장마다, 공정마다 공법이 다르고, 작업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또한 다르며,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인지부족에서 오는 실수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근로자 개개인도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지성 소장의 말이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작업 노하우를 키워 다른 현장에서도 다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몽한다는 자세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관리한다. 그

동안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씌우는 데에 10년이 걸렸듯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1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늘까지 복공판 아래서 먼지와 습기, 어둡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성공리에 이끌어온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 모두가 안전관리자가 되어 무재해 준공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